

## 해녀의 공공복지서비스 실태와 욕구 비교 분석

김상미<sup>1</sup>, 황경수<sup>1\*</sup>

<sup>1</sup>제주대학교 행정학과

### Public welfare services and the needs of the Haenyeo and a comparative analysis

Sang-Mi Kim<sup>1</sup> and Kyung-Soo Hwang<sup>1\*</sup>

<sup>1</sup>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제주, 부산 및 통영 해녀의 공공복지 서비스 실태와 욕구 비교분석을 통하여 해녀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기간은 2010년 5월11일부터 6월 21일 간 실시하였고, 제주 3지역, 부산 영도구, 통영시 각 지역 해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인터뷰 조사방법 중 녹음을 통해 공공복지의 현 실태를 파악하였고, 경제적, 의료적, 교육적, 문화적으로 구분하여 해녀들의 공공복지 서비스 욕구를 비교분석이 이루어졌다. 각 지역 해녀에 대한 공공복지 서비스 실태를 살펴본 결과, 제주지역은 잠수 보호-육성 분야, 고�령 잠수 해녀를 위한 공공복지 서비스, 의료서비스 지원이 실시되고 있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테왁보호망, 선진지 견학, 복지시설 지원 등이 지원되고 있었으나, 통영시의 경우, 지원하고 있는 사업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 복지 서비스 실태에 대한 해녀들의 욕구는 첫째, 제주지역 해녀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는 해녀 체험장 지원, 잠수복 지원, 해외견학 등으로 나타났고, 교육적 지원으로는 해녀의 정체성교육, 잠수병 예방교육, 외국어교육지원에 대한 욕구를 보였고, 문화적 지원에서는 복지회관 설치, 해외 해녀문화 교류탐방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산지역에서는 경제적 지원으로서 탈의실 및 수산물 판매장 건립, 잠수복 지원이 요구되었고, 의료적 지원은 잠수병 및 의료혜택 지원에 대한 욕구, 교육적 지원으로는 잠수기술 교육에 대한 욕구가 나타났으며, 문화적으로는 복지회관 설립과 해녀박물관 건립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 셋째, 해녀에 대한 공공복지 서비스가 비교적 열악한 통영에서는 잠수복지원, 탈의실 건립지원의 경제적 욕구와, 부산지역과 마찬가지로 의료적 지원에서는 잠수병 및 의료혜택에 대한 지원욕구를 보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criteria to public welfare service support for improving life quality of the haenyeo (female divers) through analyzing public welfare services and desires of the haenyeo in Jeju, Busan, and Tongyeong. Accordingly, research period was set from May 11 to June 21, 2010. The haenyeo in each region of Jeju, Yeongdo-gu (Busan), Tongyeong-si were selected as subjects. Recording of interviewing methods was used to recognize current status of public welfare. We analyzed by comparing desires of the haenyeo to public welfare services by dividing them economically, medically, educationally, and culturally. As a result of researching public welfare services to the haenyeo in each region, supports for protection of diving, growing area, public welfare service for aged diving haenyeo, and medical services were conducted. Tepak protecting net, Seonjinji visiting, and welfare facilities are supported in Busan-si but there is no support in Tongyeong-si. Therefore, desires of the haenyeo to such public welfare services are as followings: First, the desires of the haenyeo in Jeju to economic supports are indicated as supports for haenyeo experience spot, diving suit, and overseas visiting. To educational supports, it is indicated as supports for identity education, diving disease prevention education, and foreign language education. To cultural supports, it is indicated as supports for installation of welfare hall and exchange visit to foreign haenyeo culture. Second, in Busan, there were desires to establish changing room and fishery sales lot and to support diving suit as for economic supports, desires to support diving disease and medical benefits as for medical supports, desires to education of diving skill as for educational supports, and desires to establish welfare hall and haenyeo museum as for cultural supports. Third, in Tongyeong where public welfare services to the haenyeo are very poor, there were desires to support diving suit and to support changing room as for economic supports, as same as in Busan, desires to support diving disease and medical benefits as for medical supports

**Key Words** : Haenyeo, Public welfare services

\*Corresponding Author : Kyung-Soo Hwang

Tel: +82-10-3697-5912 email: kshwang@jejunu.ac.kr

접수일 12년 07월 11일

수정일 (1차 12년 08월 31일, 2차 12년 09월 27일)

재재확정일 12년 10월 11일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해녀는 한반도 각 해안과 여러 섬에 흩어져 있지만, 그 대부분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몰려 있으며, 해녀의 발상지는 제주도로 보고 있다. 대략 우리나라의 해녀 수는 나잠어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인원까지 포함하여 약 2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1].

나잠(裸潛)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물질방법, 그들만의 문화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해녀의 가치는 매우 높다. 세계적으로 한국해녀는 기계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물질 작업의 특수성과 문명적 가치로 인해 독특한 생업과 문화를 인정받고 있으나, 젊은 층의 기피로 급격히 고령화가 진전되어 해녀들의 존속을 위협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해녀 연령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에는 70세 이상이 2,021명(39.7%)로 가장 많았고, 30~39세는 7명(0.1%)였으며, 2010년에는 70세 이상 인구가 1,752명(43.3%)으로 가장 많으며, 30~39세는 2명(0.1%)으로 가장 낮은 연령층으로 집계되어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1]. 부산광역시 해녀 현황도 비슷한 연령분포를 보이고 있다(60~70대 479명:46%, 30~40대 1명)[2].

해녀의 연령은 50세 이상이 80년대에 29.5% 분포하였으나 90년대 들어서 51.5%로 증가하면서 해녀의 고령화는 시작되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해녀가 고령화와 바다에서 고된 작업환경 등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녀의 복지증진 정책으로 다양한 공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잠수보호·육성을 위한 잠수 테우 보호망구입비 지원, 잠수탈의장 운영비 지원, 잠수보호조끼 지원, 잠수복 지원, 잠수 질병 진료비 지원 등이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잠수 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여 해녀를 위한 다양한 복지 증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3]. 뿐만 아니라 제주해녀를 유네스코 지정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경우, 2007년 3월 12일 “고령화되고 있는 해녀들의 복지향상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2010년까지 현대식 탈의장을 신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4]. 이처럼 부산광역시 해녀에 관심을 보이게 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해녀 복지정책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타 지역은 해녀의 복지증진을 위한 방안의 도출을 위해서는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제주지역의 해녀들과의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물론 타 지역에 비해 제주지역은 공공복지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녀들의 만족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제주, 부산 및 통영지역의 해녀들에 대한 공공복지 서비스 실태를 파악하고 각 지역마다의 욕구 조사를 통하여 그 지역 여건에 적합한 복지정책을 제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해녀들의 욕구에 맞는 공공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해녀의 수를 유지·증가 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해녀에 대한 연구로는 문화인류학적 관점, 역사적 관점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공복지 서비스 관점에서 연구되어진 자료는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3개의 지역(제주, 부산, 통영)에 해녀를 위한 공공복지 서비스 지원 실태를 파악하여, 각 지역 해녀들의 욕구조사를 통해 해녀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복지서비스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해녀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공공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방안을 제공하기위하여 각 지역의 해녀(제주, 부산, 통영), 해녀와 관련된 전문기관의 면접방법 중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제주지역은 2010년 5월 11일 도두동 어촌계장과 해녀회장일행과의 면담, 6월 3일 해녀박물관 관장, 6월10일 하도리 해녀회장일행 방문을 통해 해녀 및 해녀관련 전문가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5월 27일 통영시를 방문하여 해녀 및 도민회장과 면담을 하였고, 6월 15일 부산 영도구의 도민회장 및 부녀 회장일행과 함께 해녀들이 해산물을 팔고 있는 해안가를 방문하여 해녀회장을 비롯한 여러 해녀들, 총 28명과의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통영시 해녀 홍00님과 인터뷰 과정에서, 과거는 해녀가 천한 직업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해녀라는 직업을 숨겼으나, 지금은 해녀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으며, 바다가 살아가는 의미라는 표현까지 하였다. 또한, 타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 해녀들 간의 단합, 예를 들면 공동판매, 제주해녀모임, 그 외에 가족 경조사 참석(특히, 제사)등 단결된 힘이 타 지역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말도 있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안가를 방문하여 영도구 해녀회장과 면담이 이루어졌다. 전화통화가 안 되서 해안가로 직접 찾아갔다. 다행히도 물에서 방금 나온 해녀회장을 만날 수 있었다. 채취해 온 해산물을 아들과 베트남 머느리의 도움을 받으면서 판매하고 있었으며, 또한 주변 다른 해녀들과 협동하면서 해산물 판매하는 모습에서 더불어 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표 1] 면담대상자 지역 및 인적사항

[Table 1] Discussion for public and personal information

번호	이름	지역	나이	비고
1	윤00	제주 하도리	71	해녀
2	한00	“	68	“
3	강00	제주 김녕리	56	“
4	한00	“	55	“
5	문00	“	52	“
6	김00	“	54	“
7	김00	“	65	“
8	김00	“	71	“
9	윤00	“	65	“
10	김00	제주 도두동	60	“
11	박00	“	59	“
12	오00	“	61	“
13	함00	제주 하도리		해녀관련 전문기관 직원
14	홍00	통영시	58	해녀
15	강00	“	62	“
16	고00	“	65	“
17	김00	“	70	“
18	문00	“	71	“
19	임00	“	62	서부경남제주특별자치도민연합회 임원
20	김00	“	55	통영제주특별자치도민회 임원
21	김00	부산광역시	77	해녀
22	한00	“	80	“
23	김00	“	77	“
24	김00	“	60	“
25	우00	“	50	“
26	홍00	“	68	“
27	현00	“	58	“
28	허00	“	63	부산제주특별자치도민회 임원

본 연구에 참여한 면담대상자 및 인적사항은 위의 표 1 면담대상자 지역 및 인적사항과 같다.

제주지역인 경우에는 12명의 해녀, 전문가관 종사자 1명으로 구성되었고, 부산광역시 영도구인 경우에는 해녀 7명, 도민회 임원 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통영시는 해녀 5명, 도민회 임원 2명을 대상으로 하여 총 28명에 대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 2.1 해녀

해녀들은 특별한 장치가 없는 맨몸, 즉, 나잠어법(裸潛漁法)으로 제1종 마을어장인 수심 10m 이내의 얕은 바다에서 소라, 전복, 미역, 툇, 우뚝가사리 등을 채취하며, 가

끔 작살로 물고기를 잡기도 한다. 해녀의 본고장인 제주에서는 이들은 잠수(潛嫂), 잠녀(潛女)라 부르고, ‘전복을 따는 사람을 낚잡아 이르는 말’을 뜻하는 ‘비바리’라고 부르기도 한다[5].

전통적인 제주 여성의 생업인 제주 해녀들의 노동은 기계장치 없이 물속에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작업하는 특수성과 함께, 농사와 어업에 종사하는 제주 여성의 전통적 생활 방식을 영위하고 있다. 그들은 타율적인 시간 제약 없이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 1930년대는 출가(出稼)어업의 확대로 제주도 밖 외지로 나가 물질작업을 하는 해녀들이 많아졌다. 출가해녀들은 한반도 연안 곳곳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일대의 바다에서 물질을 하였다. 이들은 가정경제를 책임졌을 뿐 만 아니라 근대기 제주 경제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근대기 생활사의 산 증인이다.

이처럼 제주해녀는 신비시되는 초인적인 나잠수 작업, 그녀들만의 독특한 언어, 칠성판을 지고 하는 작업으로 신에게 의지하는 생활에서 생겨난 무속 신앙, 노동과 함께 만들어진 노래, 공동체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조직 등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문화를 창조하고 전승했다[6]. 특히, 제주를 떠나서 물질하는 잠녀를 통해 신앙도 변화를 가져왔다. 경남 통영의 경우, 제주도 출신 해녀들이 집단적으로 물질을 하면서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 2.2 공공복지서비스

해녀를 위한 복지 서비스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공공서비스와 수협 및 지역도민회 차원에서의 민간 서비스로 구분되어 제공되고 있다.

공공서비스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소 다르게 정의된다. 삶의 질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변화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개념이나 인식 정도도 달라져 왔다. 공공서비스는 공공재(Public goods)라고 할 수 있으며, 민간재(Private goods)와는 구별되면서 공익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을 통해 공급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의미한다. 또한, 공공서비스는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출을 수반하여 상수도, 전기, 도로, 교통, 쓰레기처리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 필요로 하는 것, 경제적 관점에서 정부가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모든 서비스로 규정할 수 있다. 다양한 정의를 살펴보더라도 결국 공공서비스는 사회공동체의 편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공공이 이용할 수 있게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최근에는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에서도 비경합적 소비와 비배제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공서비스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부분에 의해 공급되거나 공급 주체

와 상관없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서비스면 공공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다[7].

### 3. 각 지역의 해녀 현황 및 공공복지 서비스 실태 및 욕구

#### 3.1 제주, 부산, 통영의 해녀 현황

제주지역, 부산 영도구 및 통영시 지역 해녀는 2010년 말 기준으로 표 2와 같다. 제주지역 해녀는 현직잠수 4,995명, 전직잠수(현재 물질조업을 하지 않는 해녀) 5,977명포함해서 전체 10,972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 부산광역시의 경우, 8개 지역 총986명중 영도구 해녀가 177명으로 나타났고[8], 통영시는 통영나잠부녀회의에 등록된 해녀가 152명으로 기록되어 있다[8].

[표 2] 각 지역 해녀 현황

[Table 2] The status of each area divers

지역	해녀 수	비고
제주	10,972	전·현직 포함
부산광역시	986	영도구 : 177명
통영시	152	

#### 3.2 해녀를 위한 공공 복지서비스 실태

해녀관련 공공복지 서비스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부산광역시청 해양농수산국 및 통영시청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종합해보면 표 3과 같다.

해녀관련 공공복지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잠수보호·육성 분야에 잠수테왁 보호망 구입 등 11개 사업에 약 41억을 지원하였다. 또한, 고령 잠수를 위한 대규모 증식장 조성에 2억 9천여만 원 등 총 12개 사업에 44억 5천 2백만원을 지원하였다[9]. 부산광역시인 경우에는 테왁보호망, 선진지견학, 복지시설지원 등 약 7억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2]. 그러나 통영시는 현재 통영시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없는 실정이다.

2010년도 해녀 관련 복지사업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제주해녀문화 재조명 및 역사 발굴 사업, 해녀 옛날 불턱 복원, 해녀 공연장 등 문화관련 지원비가 추가된 반면, 잠수진료비 지원은 축소되었다. 잠수진료비 전액 지원에서 일부 의약품 구입비는 본인부담으로 변경된 부분이다[1]. 부산광역시인 경우는 잠수복 지원이 추가되었고, 복지시설 지원비가 전년대비 두 배 이상이 증가됨을 알 수 있다. 부산광역시인 경우, 해녀에 대한 지원사업이 제주에 비해 급증함을 볼 수 있다. 이는 부산광역

지에서 선진지(제주 및 일본) 견학을 통해 해녀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통영시의 경우, 해녀들의 면접을 통해서 통영시에서의 공공복지서비스 지원이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연구자는 통영시청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을 하였다. 해양수산과에서 해녀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으나 복지지원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표 3] 해녀관련 공공 복지서비스 현황

[Table 3] Public welfare services usage for Haenyeo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09년			2010년		
	제주	부산	통영	제주	부산	통영
잠수테왁 보호망구입	20	5		17	5	
잠수탈의장 운영비지원	190			148		
잠수보호조끼지원	27					
잠수복지원	205			137	32	
잠수질병진료비지원	3,150			2,450		
해녀물질상설공연사업 / 해녀 노래공연 지원	50		해녀 관련 예산이	65		해녀 관련 예산이
제주해녀조명지원사업	50		별도로	170		별도로
잠수탈의장 개보수	72			457		
고산, 판포잠수작업장 시설사업	111					
귀덕2리 해녀탈의장 및 화장실 신축	125					
제주연안어장 수중생태조사	200		책정되어 있지 않음			책정되어 있지 않음
고령 잠수를 위한 대규모 증식장 조성	295			390		
공공시설주변 마을어장 자원조성				500		
패조류 투석				167		
관광진흥어장 개방 지원				50		
소리TAC산정 자원조사				15		
해녀 옛날불턱복원				50		
잠수탈의장온열지압				70		
바닷잡이 개방어장지원						
바닷가 정화 및 수중정화				13		
선진지견학		15			15	
복지시설 지원		700			1,500	
계	4,495	720	0	4,689	1,552	0

### 3.3 해녀의 공공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

#### 3.3.1 제주지역

제주지역 해녀들의 공공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인터뷰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첫째, 잠수복지원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4개 행정구역을 2개로 개편)으로 인해 잠수복지원이 절반으로 줄었다. 하도리 경우, 500명 해녀가 있는데 1년에 20벌 정도 밖에

잠수복 지원이 되고 있지 않아서 잠수복 지원을 받으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잠수복 지원이 증대되어 해녀작업에 기본이 되는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해녀 체험장 건립지원이다. 해녀 체험장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길거리 제공과 동시에 해녀들에게는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 게다가 일반인들에게 해녀라는 직업체험을 통해 해녀의 가치를 재조명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지역 내의 리더해녀에 대한 포상, 해외 선진지역 연수 및 견학기회 제공 등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해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각 지역의 리더해녀들은 세미나 및 워크샵에 참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러므로 리더해녀의 폭넓은 시각을 갖도록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다른 해녀들에게 자극제 역할을 하여 보다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동기유발을 일으킬 수 있다.

넷째, 해녀들의 정체성과 기술 전수를 위한 해녀학교 설립이 필요하다. 교육을 통해 해녀의 전통어법과 해녀에 대한 존재가치를 부여하고 현재 감소하고 있는 해녀의 수를 유지 또는 증가 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이다. 또한 잠수병 예방 및 처방법 등의 보건의료 등의 강의를 통해 사후 처방이 아닌 사전 예방교육을 할 수 있다.

다섯째, 해녀의 외국어 교육지원이다. 일본과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최소한의 의사소통을 위한 외국어 교육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간단한 일상대화를 통해 외국관광객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면 해녀의 관광 상품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여섯째, 복지회관 건립이다. 고령화로 혼자 거주하고 있는 해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독거로 인하여 이들은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한다. 따라서 복지회관 건립을 통해 여가활동, 문화생활, 봉사활동 등을 할 수 있는 휴식 및 문화 공간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해녀들 간에 서로 어울리면서 선·후배의 단합의 장이 요구된다.

### 3.3.2 부산지역

부산광역시 해녀들의 인터뷰 결과, 공공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첫째, 잠수복지원이다. 2009년 이전에는 전혀 지원이 없었던 공공복지서비스로서 타 지역의 견학 등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에는 신청한 모든 해녀에게 잠수복이 지원되고 있다. 따라서 잠수복 지원이 향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었다.

둘째, 현대적이고 위생적인 탈의실 및 수산물 판매장 건립 지원이다. 해안 관광지인 부산광역시 입장에서 해녀 탈의실 시설이 보기 흉하다고 철거만 할 것이 아니라 철거를 할 경우에는 깨끗하고 청결한 탈의실과 수산물 판

매장을 재 건립 해줘야 한다는 게 해녀들의 요구이다.

셋째, 잠수병과 관련하여 의료지원정책이 지원이다. 약간의 의약비를 제외하고는 잠수병을 비롯한 의료혜택이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해녀들의 의료지원에 대한 공공복지 서비스 욕구가 나타났다.

넷째, 문화생활을 위한 복지회관 설립이다. 해녀작업이 없는 날에는 복지회관에서 취미생활, 문화 활동을 통해 동료들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족이 없이 혼자 사는 해녀들은 외로움이 제일 큰 고통이라고 한다. 따라서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는 해녀들의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3.3.3 통영지역

통영시 해녀의 인터뷰 결과로서 공공복지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첫째, 잠수복에 대한 지원이다. 잠수복 한 벌이 약 30만원이며, 1년 이상 착용이 어렵다고 했다. 해녀들에게는 물질에 필수품인 잠수복 구입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공공복지서비스가 지원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잠수복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탈의실 지원부분이다. 탈의실 또한 해녀들에게 필요한 시설물이다. 현재는 콘테이너 박스를 이용하여 탈의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여간 불편하지 않다고 한다. 또한 탈의장이 해녀들이 물질하는 바닷가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동하는데도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셋째, 잠수병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이다. 해녀들이 주로 겪게 되는 잠수병에 대한 의료지원책이 이루어져야만이 감소하는 해녀의 수를 유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또한 잠수병에 대한 예방 및 처방교육도 중요하다 하였다. 다문화가정이 생기면서 이주여성 중에서 해녀를 하고 싶어 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해녀 활동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해녀기술 교육과 잠수병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해녀라는 직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4] 인터뷰 내용

[Table 4] The contents of the interview

	제 주	부 산	통 영
경제적 지원	- 해녀관련 체험장 지원 - 잠수복과 해녀도구 등의 지원 - 지역 내의 리더해녀의 포상 및 해	- 현대적이고 위생적인 탈의실 및 수산물 판매	- 잠수복 지원 - 탈의실 건립 지원

	외의 선진 지역 연구 및 견학 기회 제공	장 건립 지원 - 잠수복 지원	
의료적 지원		잠수병 및 의료혜택 지원	잠수병 및 의료혜택지원
교육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녀학교를 통해 해녀들의 정체성 교육(해녀의 전통 어법과 해녀의 존재가치 부여)</li> <li>- 잠수병 예방 및 처방법 등의 보건 강의</li> <li>- 외국어 교육을 통한 해녀의 관광상품화</li> <li>- 잠수기술 교육</li> </ul>	- 잠수기술 교육	-잠수병에 대한 예방 및 처방법 교육
문화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회관 설치</li> <li>- 해외(일본)과의 해녀문화 교류 탐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회관 설치</li> <li>- 해녀박물관 건립</li> </ul>	
기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중교통지원</li> <li>-비포장도로 정비</li> </ul>		

이와 같이 3개 지역의 해녀들은 다양한 공공복지 서비스욕구를 가지고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첫째, 경제적 지원으로서 잠수복 지원에 대한 욕구는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해녀라는 직업에는 잠수복이 필수품이다. 그러므로 해녀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크면서 필수품인 잠수복지원은 가장 시급한 공공복지 서비스 욕구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의료적 지원 부문에서는 잠수병에 대한 의료혜택 서비스 지원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미 잠수병에 대한 의료 지원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어서 의료지원 부문에 대한 욕구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부산과 통영시는 잠수병에 대한 의료혜택 지원에 대한 욕구가 나타나고 있다.

셋째, 교육적 지원 부문에서는 잠수기술 교육에 대한 욕구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령화로 인해 해녀의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을 통해 해녀를 보존하여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이다. 제주지역인 경우는 해녀학교를 통해 해녀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교육하고 있다. 따라서 타 지역에서도 해녀 교육을 위해서는 해녀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문화적 지원 부문에서는 통영을 제외한 두 지역에서는 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강한 욕구를 보이고 있다. 물론 통영시 해녀들 또한 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욕구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하지만 공공복지 서비스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욕구를 표현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 4.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해녀의 공공복지 서비스 실태를 파악한 후 욕구조사를 통해 해녀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복지서비스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 부산 및 통영의 해녀들과 인터뷰 조사를 통해, 현재 해녀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공공복지서비스 실태를 파악하고 해녀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어떠한지를 비교조사 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경제적 지원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타 도시와 비교하면 공공복지 지원이 우위를 선점하고 있으나, 잠수복 지원, 해녀도우기 지원, 노후보장을 위한 퇴직금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노후보장만 이뤄진다면 자녀에게도 해녀를 시키고 싶다고 하였다. 부산과 통영시 경우에는 잠수복 지원, 현대적이고 위생적인 탈의실 및 수산물 판매장 건립 지원 등을 요청하였다. 부산 영도구 절영해안도로 입구에서는 파라솔을 펴서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관광지로 조성한 절영해안도로와는 조화로운 모습이 아니었다. 따라서 해안도로와 어울리는 해산물 판매장이 조성된다면 관광지로서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의료적 지원이다. 해녀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것이 잠수병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령화로 인한 해녀들을 위한 의료적 지원은 공공복지지원 측면에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교육적 지원이다. 해녀들의 정체성 교육을 통해 해녀의 전통어법과 민속인으로서의 해녀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잠수 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젊은 층의 해녀 유입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문화적 지원으로 복지관 건립이다. 예전에 해녀의 삶이란 먹고 살기위한 생계수단으로서의 역할이 강했다. 그러나 사회·문화·경제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해녀들에게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 요구되고 있다. 음악교실, 무용, 웃음치료, 다양한 교양강좌를 즐길 수 있고, 또한 복지회관을 통해 해녀들의 만남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해녀의 공공복지서비스(경제적, 의료적, 교육적, 문화적)는 단지 해녀들에게 물질적으로 윤락하게 도움을 주는 형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행복하고 의미 있게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인 자립과 부를 창출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 References

- [1] Marine Fisheries Bureau,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2010.
- [2] Maritime Affairs, Agriculture and Fisheries Bureau, Busan Metropolitan City, 2010.
- [3] Fisheries Policy Bureau,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Jeju-diving fishermen hospital Ordinance", Ordinance Vol. 150, No. 2006.11.29.
- [4] Pusan International Newspaper, 2007.03.12
- [5] An, Mi-Jeoung, "Images and the Social Identity of Cheju Female Divers", Journal of Cheju Studies, Vol.15, pp.153-193, 1998.
- [6] Hye Kyung Choa, "A Study on Women Sea Diver's Adaptation ot New Work Environments", Yeongju Literary Society, Vol. 10, pp.51-88, 2005.
- [7] Lee, Seung-Woo, Park, Sang Woo,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Public Service for Better Quality of Life in Fishing Villages", Korea Maritime Institute, pp.12-13, 2010.
- [8] Gyeongnam of the Western Association of People from Jeju-SI, 「Dolharebang Vol. 6 」, 2007.
- [9] Marine Fisheries Bureau,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2009.

### 황 경 수(Kyung-Soo Hwang)

[정회원]



- 1997년 2월 :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박사)
- 1998년 8월 ~ 2000년 8월 : 제주발전연구원
- 2004년 8월 ~ 현재 :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관심분야>

교통행정, 도시행정, 문화행정

### 김 상 미(Sang-Mi Kim)

[정회원]



- 2009년 2월 : 탐라대 경영·사회 복지대학원(사회복지 석사)
- 2010년 2월 ~ 현재 :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복지행정, 청소년복지, 교육복지